

서구, '장사의 신(神)' 아카데미 큰 호응 속 개강

광주 서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사의 신(神) 아카데미'가 최근 입교식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서구는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를 초청, 특별 아카데미를 기획했다.

김유진 컨설턴트는 MBC예능국 PD 출신이자 먹거리 방송 프로그램 검증단, 국립중앙박물관 식음료 총괄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전통시

장, 지역특산품, 개별식당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실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장사의 신'으로 통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생 40명 모집에 100명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지원하면서 개강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에 서구는 지원자들의 참여 의지와 매출향상 가능성, 전문성 등을 검토해 교육생 39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8월까지 총 8회의

강의와 1회의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구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주도로 교육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서구는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업장 시설개선과 홍보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길라잡이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

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골목상권 멘토링사업 멘토단 참여 및 SNS서포터즈단의 업체 홍보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입교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무너진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전략적 변화와 혁신경영이 필요하다"며 "김유진 컨설턴트와 함께 하는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 모두가 '장사의 신'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북구,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참여 2030 청년 소상공인 모집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자본력이 미약하고 홍보 자원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판로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업체는 1개월간 마을버스 외부 광고판 홍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상품 판매가 가능한 업체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상품 홍보, 매출 증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대협업체를 통해 진행하기엔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북구는 민생경제 회복기금 7천600만 원을 투입,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를 통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제품 홍보 컨설팅, 쇼호스트 섭외, 방송 제작·송출 등 라이브커머스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김재섭 기자

북구는 1차로 오는 26일까지 15개 업체를, 2차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개 업체를 모집하며 자격요건,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1차 선정업체는 오는 30일, 2차 선정업체는 8월 30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이메일(ocean001@korea.kr)로 접수하거나 북구청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소상공인지원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광산구, 촘촘한 복지망 구축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주민 소통과 문화·여가 등 공동체 활동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밀착 지원할 마을복지관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 걸음으로 더 가까이'를 내걸고, 지난해부터 각 마을의 경로당, 주민 공간 등을 중심으로 98곳(2023년 5월23일 기준)의 마을복지관을 선정했다.

100여 개의 마을복지관에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지역주민의 상생,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한다.

광산구 부서와 4개 복지관(더불어어린이복지관·행복나루노인복지관·첨단종합사회복지관·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등 20여 개 기관 및 부서가 협업해 건강, 문화, 취미·여가 등 2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연결하고, 재능 나눔,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등 주민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광산구는 마을복지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산시민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행복복지파트너'를 양성, 배치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복지관 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청 제공

남구, 경로당서 '디지털 기기 맞춤' 교육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교육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주월동 통합거점 경로당 및 효천 중흥S클래

스 경로당 2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구청에서 매월 진행되는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대기자 발생함에 따라 관내 주민들에게 오프라인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정보기술 이용 형태 변화에 따라 관내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키오스크를 비롯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9월말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교육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은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을 비롯해 카카오톡 및 키오스크 실습·체험, 어르신 건강생활 앱 활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경희태 기자

동구, 빈집 청년 프로젝트 10팀 추가 개소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자 10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관내 빈집·빈 점포를 활용해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장로 4·5가에 청년 창업자 10팀을 추가 선정, 2년 동안 3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10팀은 지난 3월 약정서를 갖고 사업공간 리모델링 등 창업관련 절차를 완료해 이달부터 첫선을 보였다.

▲11호점 '인터미션 스튜디오 파티룸' 공간대여(파티룸) ▲12호점 '썬유리노리' 폐유리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유리 소품점 ▲13호점 '케이

(k)-피콕컬러' 퍼스널 컬러 교육·컨설팅 ▲14호점 '한결음가게' 자원순환 체험 공간 운영·교육 ▲15호점 '오터쇼'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 비누 개발·판매 ▲16호점 '풍선마마스토리(유)' 풍선 이벤트 개발·판매 ▲17호점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독립서점·문화예술장작소 ▲18호점 '디아나' 웅기 아로마 스톤 개발·판매 ▲19호점 '지엔스튜디오' 3D프린터를 활용한 피규어 공방 ▲20호점 '총장로전통주제1보급소' 전통주 복합 문화공간 등 10개소이다.

동구는 올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창업자 10팀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홍보 마케팅, 금융지원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